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연구

Review of the East Coast Areas' Development Plan

국토연자 2006-11 ·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연구

지은이 · 양하백 · 강태수 · 서태성 · 이순자 / 펴낸이 · 최병선 / 펴낸곳 ·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 제2-22호 / 인쇄 · 2006년 3월 10일 / 발행 · 2006년 3월 16일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1-6 (431-712)

전화 · 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 팩스 · 031-380-0470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 B170500

<http://www.krihs.re.kr>

©2006, 국토연구원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자 2006—11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연구
Review of the East Coast Areas' Development Plan



양하백 · 강태수 · 서태성 · 이순자



연구진

연구책임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연구반 윤양수 선임연구위원

신정철 선임연구위원

강태수 연구위원

서태성 연구위원

이춘용 연구위원

류승환 연구위원

이순자 책임연구위원

김진범 책임연구위원

연구협의위원 김원배 연구위원

이동우 연구위원

이원섭 연구위원

김영표 연구위원

발 간 사

오늘날 세계는 국경을 초월한 세계화와 지역화가 급속하게 진행중인 가운데 한반도 및 일본, 중국, 러시아가 맞닿아있는 환동해권이 세계경제의 중요한 권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는 21세기 새로운 지역거점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 지역이 각국에 있어서 낙후지역이고, 영토분쟁을 둘러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하여 성장동력을 받기에는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환동해권에 면한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상호협력 증대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기회요인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환동해권의 일부인 동해안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에서 개방형 국토축의 하나인 「환동해국토축」을 구상하여 동북아시아대에 걸맞는 개방형 다극혁신구조의 국토로 재편하여 단기적으로는 낙후지역 개발을,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정책의 흐름에서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으며, 3개의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의 계획으로 주변국가들과 경쟁하고 협력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의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델은 향후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3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 너무 지역중심적인 계획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국가의 기간계획들과 상호 연계성 확보, 각 계획간의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본 연구가 시작되었고 진행되었음을 밝혀둔다.

아무쪼록 이 연구의 결과가 동해안이 낙후지역이라는 고정틀을 벗어나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연구를 모델로하여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관련연구가 활성화되고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이번 연구에 연구책임자인 양하백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연구수행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아끼지 않은 국무조정실과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의 관련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06년 6월

국토연구원장 최 병 선

서 문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 강원도, 경상북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에 근거하고 있다.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은 2004년 11월 3개 시·도지사 협의회를 결성한 후 각 시·도 연구원의 공동 연구로 수립된 계획으로 교통 인프라, 산업, 관광, 환경관리, 집행 및 관리계획 등이 망라된 종합 계획적 성격의 계획이다. 그러나 이 계획은 지역의 시각에서 바라본 지역계획이라는 한계가 있었고, 여타 국가계획과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강원도에서 울산광역시에 이르는 동해안 지역이 국토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기능을 검토하고, 지역별 자원과 개발잠재력에 대한 분석이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지역산업 육성지대를 설정하였다. 이후 광역권 발전계획에서 제시되었던 각각의 사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거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사업들을 선행사업과 중장기 사업으로 구분하였다. 연구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별로 연구진과 공무원간의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하여 상호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지답사를 통하여 사업시행 당위성과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보다 정밀한 분석과정, 즉 지역에 대한 파급효과, 국토공간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효과측정을 거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계획들을 검토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의 틀이 마련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그 동안 워크숍이나 현장조사에서 협조를 아끼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

2006년 6월

양하백 선임연구위원

요 약

세계경제는 세계화와 지역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일본의 경제회복과 중국경제의 급부상으로 세계경제의 주류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동해안을 서해안, 남해안과 더불어 ‘환동해국토축’으로 지정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에 이르렀다.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해안 지역은 낙후된 지역으로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수려한 자연환경과 미래형 자원이 다수 분포된 동해안 지역의 3개 시·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으며, 국책사업 성격의 지역개발 사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 사업들의 기본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장 동해안 발전계획 수립의 배경과 내용

기존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의 범위를 수용하여 동해안 지역에 위치한 3개 시·도인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범위와 동일한 2020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기존계획에서 제시한 총 171개 사업을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하였다.

기존 계획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목적이나 추진전략이 불분명하였고, 사업의 내용이 나열식이고, 사업대상지가 여러곳에 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기능이 중복되거나 사업비가 성격에 맞지않게 과다책정되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기준에 맞지않은 사업들을 제외하거나 통합하는 방식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제2장 기존계획 검토

검토의 기본방향은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171개 사업의 목록을 분석하여 부문별(SOC, 산업, 관광, 자원환경)·지역별(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지역의 자원현황 및 개발잠재력을 기준으로 산업육성지대를 설정하였으며, 사업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적·지역적 당위성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다른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검토하여 선행사업과 중장기사업을 분류하였다.

제3장 기존계획 검토결과

선정기준에 의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한 결과 총 171개 사업 중 55개의 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총 사업비는 55조 7,710억원이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 색인어 _ 동해안, 발전계획, 지역산업육성지대, 선행사업, 중장기사업

차 례

발간사	i
서 문	iii
요 약	v

제 1 장 동해안 발전계획 수립의 배경과 내용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범위	2
3. 기존계획 수립과정	3
4. 기존계획의 주요내용	3
5. 기존계획의 문제점	4

제 2 장 기존계획 검토

1. 기존계획 검토방향	5
2. 기존계획 검토과정	5

제 3 장 기존계획 검토결과

1. 지역산업육성지대 설정	7
2. 대상사업의 선정	9

1) 대상사업 선정기준	9
2) 대상사업 통합기준	9
3) 대상사업의 선정	9
4) 사업시기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류	11
부 록	15

표 차례

〈표 1-1〉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정	3
〈표 1-2〉 기존계획에서 제안된 사업비 현황	4
〈표 3-1〉 지역별 대상사업 선정	10
〈표 3-2〉 부문별 대상사업 선정	10
〈표 3-3〉 사업시기 선정기준에 의한 투자비 규모	11
〈표 3-4〉 선행사업 지역별 투자비 규모	11
〈표 3-5〉 중장기사업 지역별 투자비 규모	12
〈표 3-6〉 부문별 사업시기에 따른 투자비 규모	12
〈표 3-7〉 사업기간 선정기준에 따른 투자주체별 투자비 규모	13

그림 차례

〈그림 2-1〉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과정	6
〈그림 3-1〉 지역거점 및 핵심지대의 설정	8
〈그림 3-2〉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 대상사업 위치도	14

동해안 발전계획 수립의 배경과 내용

제1장에서는 기존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안)을 참고하여 본 연구의 검토목적을 설정하고, 연구의 공간적·내용적 범위와 기존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할 방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세계의 경제는 현재 세계화와 지역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는 일본의 경제회복과 중국 경제의 급부상 등으로 최근 세계경제의 주류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환황해권과는 달리 한·러·일의 환동해권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으며, 국가간의 영토분쟁과 북한의 핵문제 등의 위협요인의 작용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정세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동해권에 면해있는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1990년대 이후 동북아 경제의존의 심화 및 협력증대를 기회요인으로 환동해경제권 형성을 도모해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환동해권에 면한 동해안권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서해안, 남해안과 더불어 개방형 국토축의 하나인 ‘환동해국토축’을 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해안은 개발정책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다. 전국제조업의 11%, 항만시설의 24%, 산업단지의 16%를 점유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울산이나 포항지역에 집중되어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의 소홀로 인하여 국토균형발전 전략에 배치되고 있으며, 동북아의 여건변화를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경쟁력의 면에서도 뒤쳐진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동해를 중심으로 4개의 나라가 연결되어 있고, 해양·에너지·신소재 등 미래형 자원의 다수가 동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지역자원을 활용한 신 자원형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동해안에 위치한 3개시·도인 울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가 주축이 되어 국책사업 성격의 지역개발 사업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으며, 본 연구는 그 사업들의 기본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계획의 범위

본 검토연구의 범위는 기존 계획인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안)’의 범위를 그대로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을 경계로 한 동해안 지역으로 이에 는 강원도 동해안 광역권(동해안 6개 시·군 및 인제군 북면, 평창군 도암면, 정선군 임계면, 태백시 포함)과 경상북도 동해안 5개 시·군(울진군, 울릉군, 영덕군, 포항시, 경주시 포함) 및 울산광역시 전역이 포함되었다. 총 3개 시도와 16개의 지자체가 포함되어, 면적은 13,754km²(전 국토의 13.8%)이며 바다와 접한 해안선은 약 655km이다. 지역의 인구는 약 260만명 정도로 전국의 5.6%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시간적 범위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범위와 일치하는 2005~2020년으로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검토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기존 계획에서 제시한 총 171개 사업(총 투자비 88조 2,000억원)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다.

3. 기존계획 수립과정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안)’은 동해안에 위치한 3개 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비전 구상계획의 일환으로 2004년 11월 8일 시·도지사협회가 결성되어 2005년 1월 3개시도 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이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여 수립되었다. 2005년 10월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2005년 12월 국무총리 보고를 통해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표 1-1〉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수립과정

일 시	계획수립 과정
2004. 11. 8	동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결성
2005. 1. 3	국토연구원 및 3개 시·도 연구원 공동연구협약 체결
2005. 3. 8 ~ 11	일본 도야마 및 니가타현 답사 및 세미나 개최
2005. 4. 5 ~ 8	동해안 지역 현지 답사
2005. 7. 11 ~ 15	중국 길림성 장춘시 및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답사 및 세미나 개최
2005. 7. 25 ~ 27	연구진 합동작업 실시(춘천)
2005. 9. 6	중간보고회 개최(강릉시청)
2005. 10. 24	국제심포지움 개최(서울 프레스센터)
2005. 11. 16 ~ 19	연구진 합동작업 실시(울산)
2005. 12. 16	최종보고회 개최(서울 롯데호텔)

자료 :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2005

4. 기존계획의 주요내용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안)’은 동해안 광역권의 인구와 경제 및 기반시설 현황으로 동해안 광역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동해안 광역권의 공간적 기능 변천과 환동해권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동해안 광역권의 비전을 제시하고, 비전실현을 위한 주요 부문별 과제를 제안하여 과제별 개별사업을 구상하는 내용으로 전개되어 있다. 과제별 개별사업은 총 171개 사업으로 도로 및 기반시설 등의 SOC 관련 사업 30개, 산업관련 사업 52개, 문화 및 관광관련 사업 59개, 환경 및

자원관리 사업 30여개로 제안되었다. 사업비는 총 88조 2천억원으로 국비가 75조 원(85%), 지방비가 4조 2천억원(4.8%), 기타가 9조원(10.2%)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2〉 기존계획에서 제안된 사업비 현황

구 분	사업 건수	투자비(조원)			
		계	국비	지방비	기타
계	171	88.2 (100.0)	75.0 (85.0)	4.2 (4.8)	9.0 (10.2)
SOC	30	69.0	68.8	0.2	-
산업	52	5.4	3.2	1.0	1.2
문화·관광	59	11.8	2.1	2.0	7.7
환경·자원	30	2.0	0.9	1.0	0.1

자료 :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 2005

5. 기존계획의 문제점

기존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기존계획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사업 목적이나 추진전략이 불분명하며, 대상사업이 나열적이고 입지가 산발적으로 산재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상호 기능이 중복되는 사업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투자비가 사업의 성격에 맞지않게 과다책정되거나 국비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업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제시된 기존계획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가능한 사업 위주의 목록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기존계획 검토

제2장에서는 제1장에 이어 기존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획의 검토방향을 설정하고, 검토과정을 서술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대상을 부문별·지역별로 나누어 검토하며, 최대한 사업의 내용을 균형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1. 기존계획 검토방향

첫 번째로 기존계획인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은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계획으로서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제하였다. 두 번째로 제안된 사업 중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한 사업을 검토하여 선정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계획의 집행수단으로 제시된 「동해안 발전 기획단」 설치구상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2. 기존계획 검토과정

먼저 제안된 계획 및 사업을 부문별·지역별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부문별로는 도로 및 기반시설인 SOC사업, 산업부문, 문화 및 관광부문, 환경 및 자원부문으로 나누었으며, 지역별로는 계획의 공간적 범위인 강원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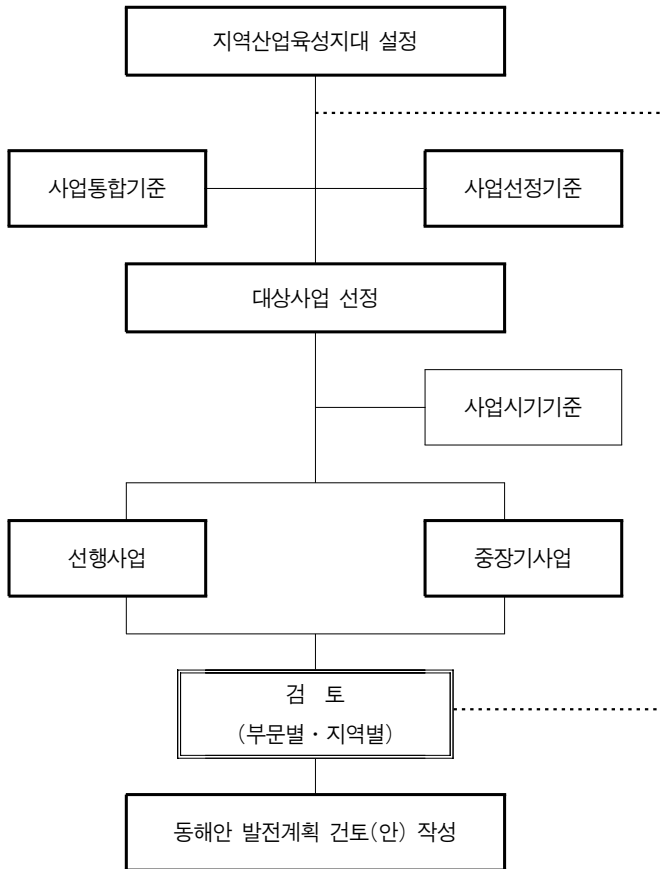
두 번째로는 지역의 자원, 개발잠재력 등을 감안하여 산업육성지대를 성장하

여 계획추진의 효율성을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사업선정기준을 설정하여 국가적·지역적으로 당위성이 있거나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성격과 입지 등으로 보아 통합추진이 효율적인 사업은 통합하는 것으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의 시급성과 다른 사업들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선행사업과 중장기사업(2011년 이후 추진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림 2-1〉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과정



3

기존계획 검토결과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제시된 검토과정을 토대로 지역산업육성지대를 설정하고,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정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도록 한다. 또한 대상사업의 사업시기를 결정하여 중장기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검토하였다.

1. 지역산업육성지대 설정

지역산업육성지대를 설정하기 위하여 171개 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입지를 검토하여 다음의 4개 지대를 설정하였다.

① 남북교류 지원지대

남북교류 지원지대는 남북접경지역으로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하여, 동부지역의 물자유통·관광개발 등이 필요한 지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강원도 고성군으로 설정하였다.

② 신소재·해양생물산업 육성지대

신소재·해양생물산업 육성지대는 강릉의 KAIST분원을 거점으로 하여 북쪽 지역의 해양·생물·식품산업과 남쪽의 요업·신소재 등으로 구분하여 산업육성이 필요한 지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양양시, 강릉시, 동해시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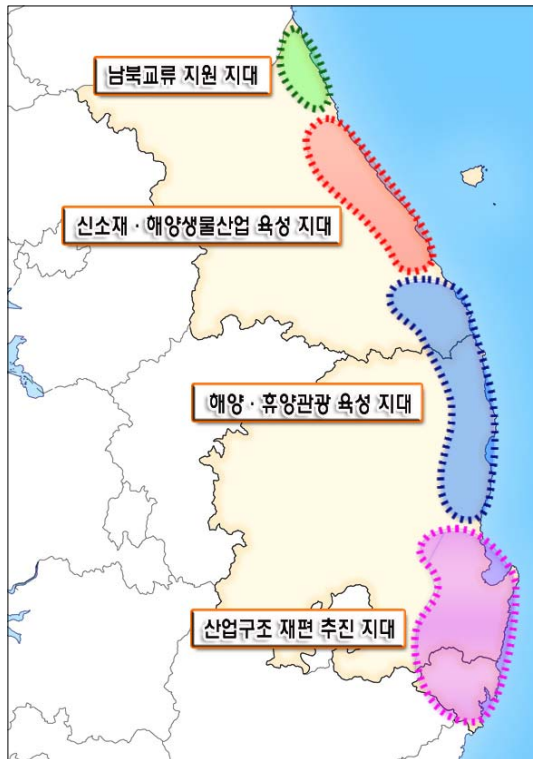
③ 해양휴양관광 육성지대

해양휴양관광 육성지대는 접근성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오지들이 위치한 곳에 관광기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으로 해안·경승지·고원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육성지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 영덕군으로 설정하였다.

④ 산업구조 개편 추진지대

산업구조 개편 추진지대는 석유화학·자동차·철강 등의 국가기간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대를 설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경상북도 포항시와 경주시, 울산광역시로 설정하였다.

〈그림 3-1〉 지역거점 및 핵심지대의 설정



2. 대상사업의 선정

대상사업의 선정은 171개 사업 중 반드시 필요한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제외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선정하게 된다.

① 대상사업 선정기준

기존계획의 문제점 검토 및 지역산업육성지대 설정 등을 통하여 171개의 사업 중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다음의 4가지 기준을 설정하였다.

- i) 기준 1: 국가정책 또는 상위계획과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선정한다.
- ii) 기준 2: 지역거점 및 핵심지대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 iii) 기준 3: 단위사업에 충분한 수요가 예상되거나 경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선정한다.
- iv) 기준 4: 인접지역 및 인접산업과 관련하여 연계 개발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한다.

② 대상사업 통합기준

기존계획에서 제시된 171개의 사업 중에서 사업의 성격, 사업대상지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중복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통합하여 대상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③ 대상사업의 선정

이와같이 대상사업의 선정기준과 통합기준을 적용하여 기존계획에서 제시된 171개 사업을 검토해 본 결과 총 55개의 단일사업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고,

소요되는 사업비는 55조 7,710억원으로 검토되었다.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109개 사업이 제외되었고, 통합기준에 의하여 10개 사업을 4개 사업으로 통합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23개 사업(9조 8천억원), 경상북도가 22개 사업(6조 7천억원), 울산광역시 6개 사업(6조 2천억원)으로 선정되었다.

〈표 3-1〉 지역별 대상사업 선정

구 분	사업건수 (개)	총 사업비(단위: 억원)			
		계	국가	지방	기타
계	55	257,710	223,529	13,532	20,649
강 원 도	23	98,240	80,834	8,738	8,668
경상북도	22	66,706	55,207	3,451	8,048
울산광역시	6	62,308	57,250	1,125	3,933
공 동	4	30,456	30,238	218	-

부문별로는 SOC부문은 12개 사업(21조 4천억원), 관광부문 17개 사업(2조 7천억원), 산업부문 20개 사업(1조 5천억원), 환경자원부문 6개 사업(1,800억원)으로 선정되었다.

투자주체별로는 국비가 22조 4천억원, 지방비가 1조 4천억원, 기타 2조 1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3-2〉 부문별 대상사업 선정

구 분	사업건수 (개)	총사업비(단위: 억원)			
		계	국가	지방	기타
계	55	257,710	223,529	13,532	20,649
SOC	12	213,834	205,532	1,400	6,902
산 업	20	15,312	9,861	2,337	3,114
관 광	17	26,755	7,023	9,282	10,450
환경자원	6	1,809	1,113	513	183

④ 사업시기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류

사업선정 기준에 의해 선정된 55개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을 통하여 사업의 시기를 결정하였다.

먼저 선행사업은 i) 4개 지대 활성화를 위해 선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 ii)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마무리가 시급한 사업, iii) 중장기적 사업이지만 조사·검토 등 계획과정에서 필요한 사업, iv) 기타 지역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 등 4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하였다.

중장기사업은 2011년 이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나 연관사업과의 관계,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2011년 이후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위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행사업은 52개 사업(25조 3천억원), 중장기사업은 3개 사업(4천억원)으로 선정되었다.

〈표 3-3〉 사업시기 선정기준에 의한 투자비 규모

구 분	계	국 가	지 방	기 타
선행사업	253,370	221,189	12,727	19,454
중장기사업	4,340	2,340	805	1,195

선행사업 중 2010년까지 투자비는 11조 1천억원이며, 2011년 이후는 14조 2천억원 규모이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강원도지역(7조 1천억원)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선행사업 지역별 투자비 규모

구 분	2010까지				2011년 이후			
	계	국가	지방	기타	계	국가	지방	기타
총 계	111,135	96,266	6,865	8,004	142,235	124,923	5,862	11,450
강 원 도	70,948	62,542	4,193	4,213	26,597	17,922	4,385	4,290
경상북도	18,340	12,215	2,383	3,742	44,721	41,022	423	3,276
울산광역시	5,303	5,129	125	49	57,005	52,121	1,000	3,884
3개 시·도공동	16,544	16,380	164	0	13,912	13,858	54	0

중장기사업은 총 3개 사업, 4,300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1개 사업 700억원, 경상북도가 2개사업 3,60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3-5〉 중장기사업 지역별 투자비 규모

구 분	중장기사업 (2011년이후)			
	계	국가	지방	기타
강 원 도	695	370	160	165
경상북도	3,645	1,970	645	1,030
울산광역시	-	-	-	-
3개 시·도공 동	-	-	-	-

각 부문별로 사업의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SOC부문의 경우 선행사업 중 2010년까지 완료사업은 8조 4천억원, 2011년 이후 사업은 13조원 규모이며, 중장기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문의 경우 선행사업 중 2010년까지 완료사업은 9천억원, 2011년 이후 사업은 1천 3백억원 규모이며, 중장기사업은 4천 2백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관광부문의 경우 선행사업 중 2010년까지 완료사업은 1조 6천억원, 2011년 이후 사업은 1조원 규모이며, 중장기사업은 9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환경부문의 경우 선행사업 중 2010년까지 완료사업은 1천 4백억원, 2011년 이후 사업은 3백억원 규모이며, 중장기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부문별 사업시기에 따른 투자비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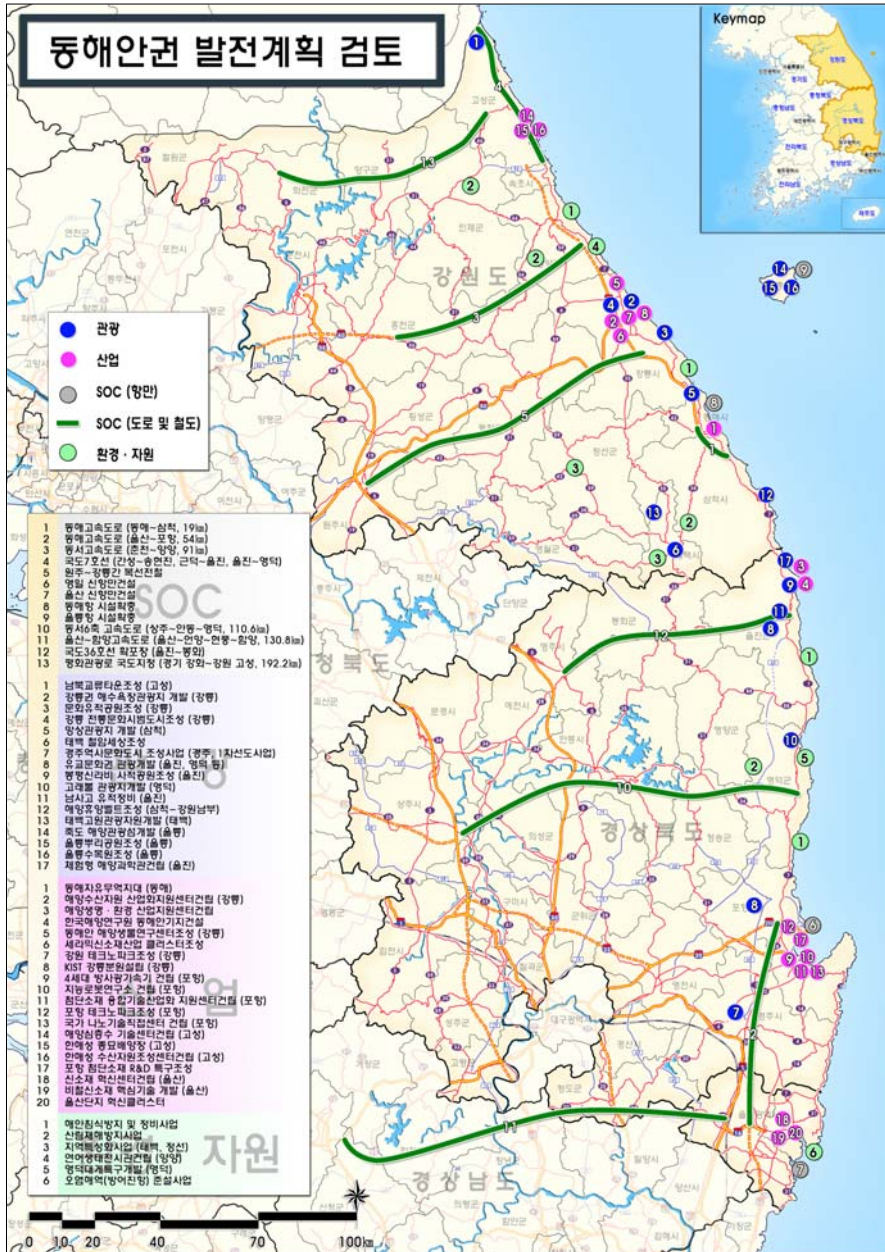
구 분		2010년까지				2011년 이후			
		계	국가	지방	기타	계	국가	지방	기타
SOC	선행	83,803	83,803	-	-	130,031	121,729	1,400	6,902
	중장기	-	-	-	-	-	-	-	-
산업	선행	9,671	6,220	1,532	1,919	1,391	1,391	-	-
	중장기	-	-	-	-	4,250	2,250	805	1,195
관광	선행	16,199	5,347	4,884	5,968	10,466	1,586	4,398	4,482
	중장기	-	-	-	-	90	90	-	-
환경	선행	1,462	896	449	117	347	217	64	66
	중장기	-	-	-	-	-	-	-	-

투자주체별로 살펴보면, 국비는 선행사업 22조 1천억원, 중장기사업 2천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방비는 선행사업 1조 3천억원, 중장기사업은 8백억원으로, 기타가 선행사업 1조 9천억원, 중장기사업 1천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표 3-7〉 사업기간 선정기준에 따른 투자주체별 투자비 규모

구 분		계	SOC	산업	관광	환경
국가	선행	221,189	205,532	7,611	6,933	1,113
	중장기	2,340	0	2,250	90	0
지방	선행	12,727	1,400	1,532	9,282	513
	중장기	805	0	805	0	0
기타	선행	19,454	6,902	1,919	10,450	183
	중장기	1,195	0	1,195	0	0

〈그림 3-2〉 동해안 발전계획 검토 대상사업 위치도



부 록

〈부록 1〉 동해안 발전계획 선정사업(55개) 목록

〈부록 2〉 동해안 발전계획 부문별 제외 및 통합사업 목록

<부록 1> 동해안 발전계획 선정사업(55개) 목록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지역	사업재원 (단위:억원)										
			2010년까지				2011년 이후						
			계	국가	지방	기타	계	국가	지방	기타			
관광	남북교류타운조성 (고성)	강원도	479	237	242								
관광	강릉권 해수욕장관광지 개발 (강릉)	강원도	3,473	1,730	448	1,295							
관광	문화유적공원조성 (강릉)	강원도	162	84	78		161	84	77				
관광	강릉 전통문화시범도시조성 (강릉)	강원도	290	181	109								
관광	망상관광지 개발 (삼척)	강원도	157	42	95	20							
관광	태백 철암세상조성 (태백)	강원도	353	93	40	220							
관광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경주, 1차 선도사업)	경상북도	2,060	1,240	820								
관광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울진, 포항 등)	경상북도	1,770	387	351	1,032							
관광	봉평신라비 사적공원조성 (울진)	경상북도	107	54	53								
관광	고래볼 관광지개발 (영덕)	경상북도	1,370	40	40	1,290	264	3	3	258			
관광	남사고 유적정비 (울진)	경상북도	6	3	3								
관광	해양휴양벨트조성 (삼척-강원남부)	강원도	5,005	745	2,149	2,111	10,011	1,489	4,298	4,224			
관광	태백고원관광자원개발 (태백)	강원도	402	213	189								
관광	죽도 해양관광섬개발 (울릉)	경상북도	30	20	10								
관광	울릉뿌리공원조성 (울릉)	경상북도	40	30	10		30	10	20				
관광	울릉수목원조성 (울릉)	경상북도					90	90					
관광	체험형 해양과학관건립 (울진)	경상북도	495	248	247								
환경	해안침식방지 및 정비사업	공동	428	287	141		45	36	9				
환경	산림재해방지사업	공동	76	53	23		151	106	45				
환경	지역특성화사업 (태백, 정선)	강원도	293	185	10	98	151	75	10	66			
환경	연어생태전사관건립 (양양)	강원도	250	125	125								
환경	영덕대게특구개발 (영덕)	경상북도	260	138	103	19							
환경	오염해역(방어진항) 준설사업	울산광역시	155	108	47								
SOC	동해고속도로 (동해~삼척 19km, 울산~포항 54km)	공동	6,416	6,416			13,716	13,716					
SOC	동서고속도로 (춘천~양양 91km)	강원도	35,788	35,788									
SOC	국도7호선 (간성~송현진, 근덕~울진, 울진~영덕)	공동	9,624	9,624									
SOC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강원도	18,652	18,652									
SOC	영일 신항만건설	경상북도	3,751	3,751			13,101	9,683	400	3,018			
SOC	울산 신항만건설	울산광역시	3,131	3,131			24,305	19,421	1,000	3,884			
SOC	동해항 시설확충	강원도	500	500			4,504	4,504					
SOC	울릉항 시설확충	경상북도	305	305			455	455					
SOC	동서6축 고속도로(상주~안동~영덕, 110.6km)	경상북도	829	829			27,650	27,650					
SOC	울산~함양고속도로(울산~연양~현풍~함양, 130.8km)	울산광역시	916	916			32,700	32,700					
SOC	국도36호선 확포장(울진~봉화)	경상북도	2,738	2,738			3,221	3,221					
SOC	평화관광로 국도지정(강화~고성 중 철원~고성192.2km)	강원도	1,153	1,153			10,379	10,379					

〈표 계속〉

사업 종류	사업명	사업지역	사업재원 (단위:억원)							
			2010년까지				2011년 이후			
			계	국가	지방	기타	계	국가	지방	기타
산업	동해자유무역지대(동해)	강원도	1,391	1,391			1,391	1,391		
산업	해양수산자원 산업화지원센터건립(강릉)	강원도	394	133	111	150				
산업	해양생명·환경 산업지원센터건립	경상북도	183	93	74	16				
산업	한국해양연구원 동해안기지건설	경상북도	190	190						
산업	동해안 해양생물연구센터조성(강릉)	강원도	100	50	20	30				
산업	세라믹신소재산업 클러스터조성	강원도	1,000	488	241	271				
산업	강원 테크노파크조성(강릉)	강원도	189	75	96	18				
산업	KIST 강릉분원설립(강릉)	강원도	317	217	100					
산업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립(포항)	경상북도	1,000	1,000						
산업	지능로봇연구소 건립(포항)	경상북도	480	180	125	175				
산업	첨단소재 융합기술산업화 지원센터건립(포항)	경상북도	807	350	57	400				
산업	포항 테크노파크 조성(포항)	경상북도	812	219	290	303				
산업	국가 나노기술직접센터 건립(포항)	경상북도	1,107	400	200	507				
산업	해양심층수 기술센터건립(고성)	강원도					695	370	160	165
산업	한해성 중요배양장(고성)	강원도	400	300	100					
산업	한해성 수산자원조성센터건립(고성)	강원도	200	160	40					
산업	포항 첨단소재 R&D 특구조성	경상북도				3,555	1,880	645	1,030	
산업	신소재 혁신센터건립(울산)	울산광역시	185	99	78	8				
산업	비철신소재 핵심기술 개발(울산)	울산광역시	120	79		41				
산업	울산단지 혁신클러스터	울산광역시	796	796						
총 55개 사업 : 25조 7,710억원			111,135	96,266	6,865	8,004	146,575	127,263	6,667	12,645

〈부록 2〉 동해안 발전계획 부문별 제외 및 통합사업 목록

총 171개 사업중에서 제외되거나 통합된 사업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i) 유형 1 : 국가정책 또는 상위계획과 괴리되어 사업의 기대효과가 크지않은 사업
- ii) 유형 2 : 해당부처가 자체계획에 의하여 년차별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추진되거나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 iii) 유형 3 : 수요의 적합성, 사업의 경제성이 현저하게 뒤떨어지는 사업
- iv) 유형 4 : 인접지역에 유사한 사업이 있어 중복투자 가능성이 있는 사업
- v) 유형 5 : 순수 지역개발사업, 순수 민자추진사업
- vi) 유형 6 : 기타 계획의 성격상 불필요한 사업

〈SOC부문 제외사업 - 18개사업〉

지역	사업명	총사업비 (억원)	비고
강원	국도6호선(양평 용두~주문진)	4,454	제외 유형 3
강원	국도38호선(제천~삼척)	15,171	제외 유형 3
강원	국도42호선(원주 흥업~동해)	7,619	제외 유형 3
강원	국도44호선(양평 용두~양양)	13,074	제외 유형 3
강원	국도46호선(가평~고성)	7,899	제외 유형 3
강원	속초항 시설확충	3,958	제외 유형 3
강원	춘천~속초간 복선철도 건설	25,527	제외 유형 3
강원	양양 신항만 건설	8,216	제외 유형 3
강원-부산	동해선철도(고성~부산)	84,180	제외 유형 3
강원-경기	동서4축고속도로(평택~음성~제천~삼척)	28,834	제외 유형 4
경북	국도69호선확포장(포항 죽장면~울진 근남면)	2,444	제외 유형 4
경북	울진~분천간 철도 건설	5,987	제외 유형 3
경북-충남	동서5축고속도로(당진~문경~영주~봉화~울진)	40,650	제외 유형 3
경북-전북	동서7축고속도로(군산~함양~대구~영천~포항)	17,720	경북구간 기완료
경북-강원	국도31호선확포장(봉화~태백)	4,879	제외 유형 3
경북-경기	국도59호선(경기 광양~양양)	9,422	제외 유형 3
경북-강원	태백~삼척~울진간 국도지정	1,000	제외 유형 4
울산	경전철 건설(효문역~울산역~울산대~굴화)	4,314	제외 유형 5

〈산업부문 제외사업 - 34개 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강원	해양바이오산업인프라구축(강릉)	394	제외유형 6
강원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센터육성(강원)	112	제외유형 3
강원	IT협동연구센터 강원분소육성(강릉)	72	제외유형 3
강원	해양심층수산업기술센터설립(강릉)	200	제외유형 4
강원	웰빙산업진흥원 설립(동해)	170	제외유형 3
강원	IT 산업특성화지원 사업(강릉)	51	제외유형 2
강원	건축자재 수출입가공 및 조립기지구축(동해)	100	제외유형 3
강원	신소재 원료생산 집적지 화사업(강원)	400	제외유형 3
강원	방재산업단지 조성(동해)	730	제외유형 3
강원	북방교류 신산업단지조성(양양)	313	제외유형 3
강원	대관령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	1,664	제외유형 6
강원	태백지역 풍력발전단지 건설	1,614	제외유형 6
강원	강릉광역권R&D특구지정	2,155	제외유형 3
강원	요업(세라믹)기술원 강릉분원 설립	150	제외유형 4
강원	신재생에너지 Felt-Park조성(속초)	90	제외유형 6
경북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경주)	1,300	제외유형 2,6
경북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경주)	9,600	제외유형 2,6
경북	포항물류유통단지 조성	1,700	제외유형 5
경북	최첨단항만물류시스템구축(포항)	3,000	제외유형 6
경북	북한화물 환적센터 건립(포항)	155	제외유형 3
경북	지역테마 과학관 건립(포항)	515	제외유형 5
경북	포항자유무역지대	3,000	제외유형 1
경북	해양바이오산업 단지 및 레포츠타지조성(울진)	1,600	제외유형 3
경북	해양과학연구기지 건립(독도)	550	제외유형 6
경북	동북아 테크노센타 건립(포항)	450	제외유형 4
경북	영덕지역 풍력발전단지조성	1,065	제외유형 6
울산	자동차산업 배후단지조성(울산)	1,349	제외유형 5
울산	자동차부품혁신센터건립(울산)	743	제외유형 6
울산	정밀화학지원센터건립(울산)	335	제외유형 6
울산	신산업단지조성(울산)	2,515	제외유형 5
울산	오토밸리(모듈화)단지조성(울산)	670	제외유형 5
울산	설비종합 안전성평가연구소 육성(울산)	240	제외유형 5
울산	울산자유무역지대	1,500	제외유형 1
울산	조선해양산업 육성(울산)	122	제외유형 6

〈관광부문 제외사업 - 42개 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강원	설악동 집단시설지구재정비	5,699	제외유형 3
강원	고성관광자원개발	6,066	제외유형 3
강원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조성	1,877	제외유형 3
강원	동해안축 복합관광개발사업	4,488	제외유형 3
강원	태백고지대 스포츠훈련장 특구조성	4,013	제외유형 3
강원	태백 국민안전체험 테마파크조성	2,500	제외유형 3
강원	속초 러·중 문화촌조성	183	제외유형 3
강원	남북교류거점지역개발(고성)	670	제외유형 4
강원	세계항구문화엑스포 및 해양타워 벨리조성(동해)	950	제외유형 6
강원	탄광지역생활문화현장보존복원 사업(태백)	450	제외유형 3
강원	어촌관광단지조성(동해)	60	제외유형 3
강원	속초해수욕장관광지개발	3,984	제외유형 3
강원	외설악지대 관광자원개발	1,618	제외유형 3
강원	설악산 대청봉케이블카 설치	150	제외유형 1
강원	양양국제공항 배후복합단지조성	1,189	제외유형 6
강원	양양관광자원개발	5,235	제외유형 3
강원	알펜시아리조트조성(평창)	11,245	제외유형 5
강원	국민체력증진시설건립(강릉)	553	제외유형 5
강원	강릉 사계절관광지개발	2,156	제외유형 3
강원	태백 서학레저단지조성	2,884	제외유형 5
경북	망양정 공원정비(울진)	138	유교문화사업으로 통합
경북	월송정 공원정비(울진)	118	유교문화사업으로 통합
경북	호미곶 관광지개발(포항)	1,480	유교문화사업으로 통합
경북	호미곶 해양레저특구지정 (포항)	3,642	제외유형 3
경북	해수욕장 특화개발(포항)	1,322	제외유형 5
경북	하옥계곡개발(포항)	200	제외유형 5
경북	옥계산성계곡개발(영덕)	760	제외유형 5
경북	울릉경비행장건설	2,790	제외유형 6
경북	거마장근린공원조성(경주)	600	제외유형 5
경북	어촌관광단지조성(경주)	70	제외유형 2
경북	해양 낚시공원조성(포항)	29	제외유형 5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주변 관광지개발	70	제외유형 6
경북	장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영덕)	277	제외유형 3
경북	울진지구 숙박휴양거점개발	1,233	제외유형 3
경북	뱃머리마을 종합개발(포항)	426	제외유형 5
경북	등기산 유적지조성(울진)	51	제외유형 6
울산	병영성 정비(울산)	181	제외유형 6
울산	연양읍성 복원정비(울산)	1,059	제외유형 6
울산	전시·컨벤션 센터건립 (울산)	1,000	제외유형 6
울산	강동권종합개발(울산)	20,282	제외유형 5
울산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관광자원개발 (울산)	174	제외유형 6
울산	신불산 산악관광자원화사업(울산)	66	제외유형 5

〈환경·자원부문 제외사업 - 25개사업〉

지역	사업명	사업비 (억원)	비고
강원	인공어초시설 확충(강원)	1,215	제외유형 2
강원	해중립 조성	111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통합
강원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525	제외유형 6
강원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사업	2,085	제외유형 5,6
강원	어촌종합개발	1,262	제외유형 2
강원	지방어항건설	3,503	제외유형 2
강원	어촌정주어항건설	4,860	제외유형 2
강원	해안정비 사업	862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통합
강원	태백산림재해예방항구복구 사업	137	산림재해방지사업으로 통합
강원	산림병충해 방제사업	92	산림재해방지사업으로 통합
강원	대관령 고원휴양경관풍치림 조성	40	제외유형 5,6
강원	차항계곡 식수용전용담 건설	500	제외유형 2,6
강원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547	제외유형 2
강원	태백청정고랭지채소특성화 사업	71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통합
강원	정선 생약초특화지역 조성	424	지역특성화사업으로 통합
강원	정선 미래경제림 단지조성	424	제외유형 6
강원	바다목장화 사업	100	제외유형 2
강원	연안특화양식단지 조성	36	제외유형 5,6
강원	수산물관광시설 확충	420	제외유형 5
강원	고성 복합증양식 기반시설 조성	133	제외유형 5,6
경북	수입 수산물 도매시장건립	200	제외유형 5
경북	독도 동도~서도연결 물양장 시설	800	사업취소
경북	감포항 개발	388	제외유형 5
경북	울진관광형바다목장사업	572	제외유형 2,5
경북	봉평침식방지 사업	158	해안침식방지사업으로 통합